

창덕궁 후원의 시문분석에 의한 의경(意境)과 경관 특성

손용훈* · 함광민**

*치바대학교 조경학과 · **치바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A Study on Yijing and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nalysis of Poems in Changdeokgung's Rear Garden

Son, Yong-Hoon* · Ham, Kwang-M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iba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Horticulture, Chib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Changdeokgung's rear garden with the idea of *Yijing*(意境) the way to have a sense of an imaginative object. A term of *Jing*(境) in *Yi-jing* means a boundary of man's consciousness. On the boundary of consciousness for an imaginative object, there is a situation of man's emotion to be called *Qingjing*(情境) to meet an object, and beyond *Qingjing*, there is *Yijing*, a consciousness of the idea and the truth.

The Structure of the *Yijing* is an analytical framework in this study. It is clarified that the idea of *Yijing*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changdeokgung's rear garden to analyze works of kings and related historical documents.

In result, there were three kings named Injo, Sukjeong and Jeongjo who played big roles to develop the rear garden. First, Injo had built physical structure of the rear garden, the second Sukjeong enjoyed *Qingjing* with composing the poems of *Sangrimshipkyoung*(上林十景), Jeongjo clearly had made a boundary of idea of *Yijing* broaden.

It is an effective way to interpret imaginative characteristics of our traditional landscape through the concept of *Yijing* the useful way to understand and systemize a subject of idealistic consciousness.

Key Words : *Yijing*, *Qingjing*, *Sukjeong*, *Jeongjo*, *Changdeokgung's Rear Garden*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의적 대상에 대한 해석방법으로서 의경(意境) 개념을 사용하여 창덕궁 후원의 경관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의경에서 경(境)은 경계를 의미하며, 사물을 인식하는 범주이다. 사의적 대상에 관한 인식의 범주는 감정적인 면을 대상으로 하는 정경이 있으며, 이보다 확대되어 진리 혹은 이상의 정신적 대상을 포함하는 의경의 단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경의 구조를 분석 틀로 하였으며, 조영 주체인 왕의 행적과 고전을 중심으로 창덕궁 후원의 의경과 경관 특성을 명확히 하였다.

연구결과, 창덕궁 후원 조영에 있어서 인조, 숙종, 정조 세 왕이 깊게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조는 후원 조영의 물리적 기반을 닦았고, 숙종은 상림십경(上林十景)을 통해 후원의 정경을 향유하였으며, 정조는 학식과 정치적 비전에 관한 뜻을 후원에 투영하여 의경의 범주를 넓혔다. 의경 개념은 정신적 대상의 범주를 체계화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사고방법으로, 형태보다 정신적 대상을 중시한 우리나라 전통조경의 효과적인 해석 방법론이라 하겠다.

주제어 : 의경, 정경, 숙종, 정조, 창덕궁 후원

* Corresponding Author : Son, Yong-H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iba University, Matsudo 271-8510, Japan.
Phone : +81-47-308-8812, E-mail : yonghoon.son@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중일의 동양예술은 물리적 형태의 아름다움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적 의미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의경(意境)은 동양예술에 있어서 사의성(寫意性)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석 방법이다. 중국의 대표적 사전인 사해(辭海)에서 의경의 정의를 보면 “문예작품 혹은 자연경관에서 나타난 감정과 합치된 공간을 말한다.”고 하였다¹⁾. 중국미학범주사전(中國美學範疇辭典)²⁾은 의경을 “중국의 특색을 갖춘 미학의 범주”라고 정의하며, “정(情)과 경(景)의 융합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념과 형상이 승화되어 특징적이고 전면적이며 중층적인 미학적 세계를 취한다.”라고 하였다(大東文化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3).

즉, 의경은 형태에 담겨 있는 정신적 의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사고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의경은 예술의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에서 존재하며, 주체와 객체의 융합을 통하여 창작주체의 감정이나 사상을 깊게 이해하는 사고방법을 제시한다(大東文化大學 人文科學研究所, 2003). 의경은 예술행위에 있어서 의미 구조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방법을 제시하며, 오랜 세월을 걸쳐 중국예술분야의 연구소재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 고전원림에 있어서도 의경은 대표적인 특징으로 일컬어지며, 정원 조성의 가장 높은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谷光燦, 2010).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창석(2010)의 산수화에 구현된 의경 연구와 성범중(1993)의 조선시대 시화집을 대상으로 한 의경 연구 등 회화와 문학에 있어서 다소 의경이 연구되었지만 전통정원에 있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전통정원에 관한 의경 연구로서 김현미(2011)는 조선시대 별서정원인 소쇄원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주체인 양산보를 중심으로 한 의경 양상과 공간특성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의경 양상에 주목하여 의미표현의 다양성은 제시하였지만, 개념을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의경 연구에 있어서는 의미 분석에 따른 명확한 개념 확립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경관 분석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창덕궁 후원을 연구대상지로 하여 의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후원을 조성한 역대왕의 시대적 배경과 시문 등의 고문헌을 통해 후원의 의경과 경관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창덕궁 후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첫째, 정원의 조영자인 왕들에 관한 기록과 공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 둘째, 창덕궁 후원은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높은 경관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셋째, 다수의 선행연구가

실시되어 있어 의경 해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창덕궁 후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크게 양식론적 연구와 상징론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양식론적 연구로는 창덕궁의 공간구성과 배치, 경관요소와 변화, 식재 특징 등에 관한 연구가 이에 속하며, 이유직(1987), 심우경과 지정섭(1994), 백지성(1996), 조재모(1997), 김영모(1998), 탁영란 등(2009)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상징론적 연구로서는 사상 및 의미, 정신적 내면의 세계를 다룬 것으로 전인순(1989), 진상철(1995), 송동현(2005), 정우진과 심우경(2011)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아직까지 전통정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간구성 등의 물리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주류이다. 반면, 최근에는 사의적(寫意的)인 경관해석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발표되고 있다. 신상섭(2011)은 조선시대의 주거경관을 대상으로 시문을 분석하여 의미경관을 고찰하였으며, 이혁종과 최기수(2009)는 동천(洞天)이 지닌 경관 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창덕궁 후원이다. 내용적 범위는 의경에 관한 창작주체인 조선 왕대의 역사와 후원의 조영 과정이며, 후원의 향유와 관련된 시문이다. 시간적 범위는 창덕궁이 중건된 태종대부터 조선말 순종대까지이다.

2) 연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과 궁궐지, 그 외 왕대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먼저 창덕궁에 관한 고전(古典), 동궐도(東闕圖), 주련(柱聯)과 현판(懸板)을 이용하였으며, 참고자료로서는 궁궐에 관련하여 시문이 잘 소개된 한영우(2003), 최종덕(2006), 문화재청(2007), 서울학 연구소(1994)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원문을 얻지 못한 고전에 있어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원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이하 두 단계로 정리·분석하였다.

1. 창덕궁과 관련한 의경은 창작주체인 왕들의 후원조성과 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주요 시문 및 기록 분석을 통하여 후원의 의경 구조를 해석한다.

II. 의경의 개념과 구조

1. 의경의 기본 개념

중국에 있어서 의경 개념의 형성은 그 역사가 오래 되고, 그

해석도 다양하다. 의경 개념의 발생에 관해서는 장자(기원전 369~289 추정)의 유심설(遊心說)과 소요유(逍遙遊)의 시대까지 올라가지만, 의경이란 말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이보다 한참 후대인 당대(唐代) 시인 왕창령(王昌齡)(698~757)의 저서인 시격(詩格)이라 전해진다(류명희, 1994; 임미숙, 2004).

시격에서 왕창령이 말한 의경 개념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의경이라는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의(意)보다 경(境)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意)가 “개인이 갖는 마음 혹은 뜻”을 의미하며 개념이 비교적 명료한데 비하여, 경(境)은 그 의미가 매우 복잡하고 애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谷光燦, 2010).

중국 당대(唐代)에 경(境)이란 말은 불교용어인 산스크리트어 'viSaya'에 해당하는 번역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viSaya'는 활동의 장소(場所), 경계(境界), 오감(五感)이 인지하는 극(極) 등을 의미한다(Arthur Anthony Macdonell, 1929).

또한 불교용어인 十八界에 경(境)이 포함되어 있다.

十八界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6근(六根)의 감각 기관과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6경(六境), 또한 6근(根)과 6경(境)의 화합에 의해 생성된 6식(六識)을 합한 것을 말한다(新村出, 1955). 예를 들어 안근(眼根)은 색경(色境)을 대상으로 하며, 이렇게 인식되는 것을 안식(眼識)이라 한다. 또 의근(意根)은 그 대상을 법경(法境)이라 하고 이를 통해 인식하는 것을 의식(意識)이라 한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경(境)은 결국 경계(境界)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인식(認識)의 범주로서의 경계를 말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경(境)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창령이 말한 의경에 관해 살펴보자.

詩에는 세 가지 경이 있으니 첫째는 '物境'이다. 山水詩를 짓고자 할 때 泉石雲峰의 境界 중 극히 아름답고 빼어난 것을 펼쳐내려면 그것을 마음에서 신묘하게 체득하고, 몸은 境界에 두고서 마음에서 境界를 보아 境界가 확연하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된 후에 생각을 운용하면 境의 형상이 뚜렷해질 것이므로 形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情境'이다. 즐겁고 기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다 뜻을 통해 펼쳐내어 몸으로 체득한 후에 상상력을 구사하면 그 情을 깊이 체득하게 된다. 세 번째는 '意境'이다. 역시 그것을 뜻에서 펼쳐내어 마음에서 생각하면 그 참 모습을 체득하게 된다³⁾.

왕창령(王昌齡) 시격(詩格)

현대 문학가이며 시인인 우샤오량(吳曉)은 “물경은 감각의 경이며, 그 표현은 감각(感覺)이다. 정경은 정감의 경이며, 그 표현은 정감(情感)이다. 의경은 의념의 경이고, 표현되는 것은 의념(意念)이다. 감각, 정감, 의념은 곧 인간과 주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세 가지 단계이다.”⁴⁾라고 하였다.

물경(物境)은 물리적 형태의 아름다움 혹은 사실의 인식을

의미하며, 정경(情境)과 의경은 이 범주를 넘어 정신적 대상까지 포함한 설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경과 의경이 다시 구분되는데, 정경은 물리적 형태에 창작주체의 상상력을 더한 오감의 표현이며, 창작주체의 감정 흥취라고 할 수 있다. 의경은 창작주체의 정신세계에서 뻗어 나간 진리(真理), 이상(理想)을 말한다. 즉, 의경의 범주로 들어가면 갈수록 위에서 설명한 불교의 법경(法境)처럼 경(境)의 범주는 한없이 넓어진다.

2. 중국 원리에 있어서의 의경

중국 원리에 있어서 의경 연구를 보기 전에 근대 의경 연구의 선구자인 왕귀웨이(王國維, 1877~1927), 중바이화(宗白華, 1897~1986) 두 인물을 이해해야 한다.

왕귀웨이는 청조말기의 학자로 중국 최초의 개화문명 비평가이며, 국학대사(國學大師)를 역임한 저명한 국문학자이다. 그는 근대 서양 미학이론을 공부하고 이와 비교하며 중국 문학과 미학을 연구하였다. 그의 저서 '인간사화(人間詞話)'에서 중국 문학에 있어서 경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詞)는 경계(境界)를 최상으로 삼는다. 경계가 있으면 저절로 높은 품격을 이루고, 저절로 뛰어난 구절이 있게 된다. 오래와 북송의 사가 유독 뛰어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략) 경계란 오직 경물(景物)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니,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역시 인간의 마음속의 한 경계이다. 그러므로 참된 경물(眞景物)과 참된 감정(眞感情)을 잘 그려낼 수 있으면, 그것을 일컬어 경계가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계가 없다고 한다.”

(王國維 저 류창교 역주, 2004).

일반적으로 왕귀웨이의 경계설은 중국 근대 미학에 있어서 의경설의 기원으로 해석된다(葉朗, 1985)⁵⁾. 예랑(葉朗)은 “경계 혹은 의경은 미학의 범주이며, 왕귀웨이가 제창하였다. 또한 왕귀웨이는 의경설의 집대성자이다.”라 하였다(葉朗, 1985).

중바이화는 의경을 중국 예술분야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의경의 발생배경에는 중국의 삼대 고전 철학인 유교, 불교, 도교가 있음을 논하였다. 저서 '미학산보(美學散步)'에서는 “예술가는 스스로 심령이 만상을 비추며 산천(山川)을 표현한다.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명의 정조(情調)와 객관적인 자연 경관을 융합하여 표현한다. 한 마리 새가 뛰어올라 정교하고 활발하며 심오한 선경을 이루며, 이러한 선경이 예술을 구성하는 예술의 의경이다.”라고 하였다(宗白華, 1981).

중바이화의 의경 연구는 많은 비유와 표현의 애매함으로 이후 의경 연구의 엄밀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의 의경 연구는 의경을 중국예술가들의 창작 중심으로 개념화하여 이후, 문학, 회화, 서도, 건축, 조각, 극, 음악, 원림까지 모든 중국 예술분야에서 이론적인 검토가 시작되게 되었다(谷光燦, 2010).

왕귀웨이, 중바이화에 의해 재조명된 중국예술미학과 의경 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국 원림의 의경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연구의 예를 들면 전공조우(陳從周)는 저서 '설원(說園)'에서 의경과 원림의 관계성을 논하며 원림에 있어서 의경과 경계가 같은 개념임을 지적하였다(陳從周, 1985).

팽이강(彭一剛)은 중국 고전원림 분석연구에서 의경과 시정화의(詩情畫意) 이 두 가지가 중국 정원의 특징이라 하였으며, 의경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고전원림의 목적이라고 논하였다(彭一剛, 1984).

90년대 이후 중국 원림에 관한 의경 연구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주원림(蘇州園林)의 의경을 테마로 한 진스웨즈(金學智, 1999), 강남원림(江南園林)을 테마로 한 성송(盛翀, 2009) 등 개별 중국원림의 의경을 주제로 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구광간(谷光燦)은 90년 이후 원림의경의 연구를 정리하여, 주된 세부 테마를 구분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1. 의경의 표현양식에서 기본개념까지의 종합적 검토, 2. 구체적인 경관요소에 대한 표현 및 설계에 관한 연구, 3. 구체적인 표현수법, 4. 개별 원림 별 의경 분석, 5. 의경의 유형 분석, 6. 의경의 미학적 해석, 7.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외국의 정원미학과의 비교연구 등이다(谷光燦, 2010).

왕푸싱(王福興)은 “중국 고전원림의 의경 표현수법은 눈앞에 구체적 형상을 거쳐 더욱 심도하고 아름다운 경지를 암시한다. 즉, 모든 경관은 그 뜻을 다함이 무한하다.”라고 하였다(王福興, 2004).

중국 원림의 의경 사상은 고대 중국사상과 중국인이 전통적으로 향유한 원림의 사의적인 조영 취향이 발생의 근간이 되지만, 원림 의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새로운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근대 미학연구의 선구자 중바이화 등에 의해 중국미학의 중심개념으로 의경이 연구된 이후이다.

또한 의경의 기본개념은 경계이며, 그 경계가 물리적 대상에서 정, 의와 같은 사의적 대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의경에 있어서 시문(詩文), 가사(歌詞)는 경계의 최상으로 높은 격조를 이룬다.

고대 동양철학에 있어서 의경은 그 경계가 무극하다. 유교 불교, 도교는 의경을 형성하는 중심이 된다. 특히 도가사상은 자연철학을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해석하며, 노자의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같이 자연과 합일하여 인간의 내면 안에서 그 경계를 규정할 수 없는 우주를 그리므로 의경을 무극하게 한다.

또한 의경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평가가 아니다. 창작주체와 사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물경의 단계에서는 대상이 중심이 되지만, 정경으로 확대되면 창작주체의 감정이 이입되고 사물과 감정이 융합하여 하나의 대상이 된다. 의경으로 확대되면 개인의 감정의 범위를 넘어서 처음의 사물은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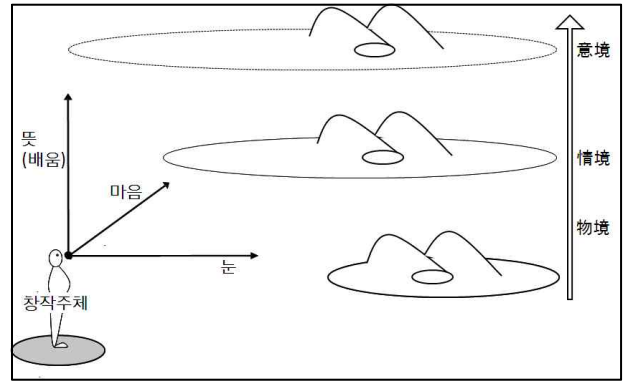


그림 1. 의경의 구조

주체가 갖는 큰 의(意)와 하나가 된다. 즉, 창작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경을 파악할 도리가 없다.

그림 1은 지금까지 설명한 의경의 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역대왕들의 후원 조영과정과 공간활용

창덕궁은 조선 3대 왕인 태종에 의해 영락 3년(1405년) 창건되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태종은 골육상잔의 장소인 경복궁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거처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 이궁으로 창덕궁을 건설하였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창덕궁을 건설한 이듬해 창덕궁 정전인 인정전 동쪽에 경복궁의 경회루와 같은 기능을 하는 광연루를 조성하였으며, 창덕궁 후원에는 해운정을 조성하여 궁중 연회와 활쏘기 행사에 사용하였다고 한다⁶⁾. 세조실록에서는 세조는 당시까지 이름이 없었던 창덕궁의 각 전당에 이름을 지어 붙였으며⁷⁾, 민가 73구를 철거하여 후원을 더욱 넓혔다고 한다. 연산군은 현재 영화당 동쪽에 유희공간을 조성하고자 높은 단을 쌓고 서충대를 지었다⁸⁾. 이처럼 조선 초기 창덕궁 후원은 역대 왕들에 의해 사용되며, 점차 확장되어 갔다. 당시 후원의 공간범위는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당시의 창덕궁 후원이란 현재 창경궁 춘당지 주변에 해당한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인조반정을 거치며 창덕궁의 많은 건물은 소실되었고,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후원의 자취는 거의 찾기 어렵다.

창덕궁 후원이 지금의 형태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인조대이다. 표 1은 역대 왕들 중 비교적 후원 조성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왕대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조는 즉위 직후에도 천계 4년(1624년)의 이괄의 난, 천계 7년(1627년)의 정묘호란 등 어지러운 국정 안에 있었으나, 국난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창덕궁 후원에 정자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먼저 창덕궁 후원의 북단인 유희천 주변지역에 소요정, 청의정, 태극정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병자호란이 일어

나 창덕궁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는 자신이 조성한 정자를 잘 누리지 못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환궁한 이후에도 인조는 정자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였다. 인조는 현재에 이 어지는 창덕궁 후원 공간의 물리적 기반을 다진 왕이라 하겠다.

창덕궁 후원이 한층 발전을 이룬 것은 숙종대이다. 숙종은 여러 궁궐 중 창덕궁을 가장 아끼고, 후원을 특히 사랑하였다 한다(한영우, 2003). 숙종은 후원의 가장 높은 언덕에 능허정을 짓고, 후원을 부감(俯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존덕정 주변에는 청심정과 심추정을 지었으며, 영화당의 서쪽에는 택수재, 북쪽에는 애련지, 애련정을 지었다. 또한 인조대 지어진 정자도 개수 하였다.

숙종대에 후원은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네 곳의 정원공간이 확립되었다. 또한 인조와 달리 숙종은 자신이 지은 후원의 정자를 자주 즐겼다. 자신이 조성하거나 수리한 정자를 중심으로 천향각, 어수당, 심추정, 소요정, 희우정, 청심정, 관덕정, 관풍각, 영화당, 능허정 등 후원내 10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팔경시인 상림십경(上林十景)을 지어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였다(안장리,

2007).

다음으로 주목할 왕은 정조이다. 정조는 숙종이 만든 택수재를 고쳐 부용정을 지었으며, 부용지 북쪽에 주합루를 지어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으로 사용하였다. 주합루 주변에는 부속 건물로 서향각, 봉모당, 개유와, 열고관을 지었다. 규장각은 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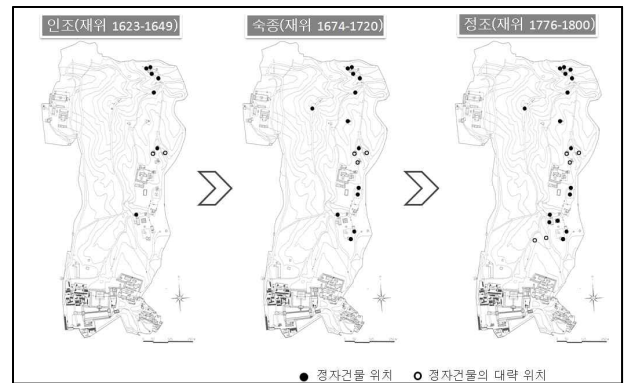


그림 2. 인조, 숙종, 정조 세 왕대에 걸친 후원 조성 과정

표 1. 왕대로 본 창덕궁 후원의 조영과정과 공간활용

왕대	조성	비고
태종	해운정(1406)*	후원에 해운정을 조성하여 궁중 연회와 활쏘기 행사에 사용. 해운정은 이후 신독정(1414)으로 개명
세조	열무정(1461)*	1462년 민가 73구를 철거하여 후원을 확장 1469년 은퇴 후 거처로 하기 위해 무일전을 조성하도록 명하였으나 같은 해 수강궁에서 서거
성종	관덕정(1471)*	생존하였던 세 왕대비(세조·덕종·예종의 왕후)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창경궁 창건(1483)
연산군	서충대(1505), 춘당지(1506)*	후원을 사치스런 유희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 확장공사를 계획·실시 궐 안 공식행사에 사용되던 야외마당인 춘당대에 높은 단을 쌓아 유의장소인 서충대를 조성
중종	-	서충대를 철거하고 다시 과거시험, 행사장소인 춘당대로 활용
선조	-	임진왜란(1592)으로 모든 궁궐이 소실됨. 창덕궁, 창경궁 중건 착수(1607)
광해군	영화당(1611)**	창덕궁, 창경궁 중건 완료(1608) 1617년경부터는 궁궐 신축에 큰 관심을 보여 경덕궁(현 경희궁), 인경궁, 자수궁 신축공사를 실시 1623년 인조반정 때 큰 화재로 창덕궁 대부분의 건물이 다시 소실됨
인조	관풍각(1633)*, 소요정(1636), 청의정(1636), 태극정(1636), 취규정(1640), 관덕정(1642)*, 심추정(1643), 존덕정(1644), 취향정(1645), 청연각(1646), 취승정(1647)	창덕궁을 중수하고 후원에 다수의 정자를 조성함 옥류천 바위에 도랑을 파 소요정 앞에 폭포를 만들고 어필로 玉流川이라 바위에 새김 단, 후원 조성 도중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 남한산성으로 피난함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후원의 정자 조성에 힘씀
숙종	청심정(1688), 영타정(1689)*, 희우정(1690), 능허정(1691), 영화당 재건(1692), 애련지(1692), 애련정(1692), 심추정 중수(1692), 택수재(1707), 척녀정(1707)	여러 궁전을 왕래하며 사용하였지만, 그 중 창덕궁을 가장 아꼈다고 기록됨 제정각(1687)을 건설하고, 또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후원 내 많은 정자와 정원공간을 조성함 택수재는 정조 때 부용정으로 개명됨 인조가 지은 취향정(1645) 초당을 기와로 바꾸고 희우정이라 개명함
정조	규장각·주합루(1776), 서향각(1776), 봉모당(1776), 열고관(1776), 개유와(1776), 부용정(1792), 농산정(1792)	문화정치를 지향하며 학문을 가까이하고 신하를 아낌 규장각과 주합루를 비롯한 궐내 학문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부용지 주변에 조성한 부용정 주변에서 신하들과 낚시와 시문을 즐기 사적으로는 옥류천 주변의 농산정을 아끼고 자주 머무
순조	의두합(1827), 연경당(1827~1828)	의두합은 순조 27년 효명세자(익종)의 대리청정시 조성됨. 효명세자(익종)는 1828년 경 동궐도 제작 1830년 창경궁의 큰 화재, 1833년 창덕궁의 큰 화재로 일부 건물이 소실됨
현종	-	1937년경 궁궐지 편찬
순종	-	창덕궁 개수(1907). 일제의 영향아래 창덕궁이 공원화 되며 자동차용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전당이 철거됨

자료: 한영우(2003), 태종실록, 세조실록, 연산군일기, 숙종실록, 정조실록, 궁궐지를 참고로 작성.

*현재 창경궁내 위치함. **조성연도가 명확하지 않음.

을 중시하는 정조가 외척세력과 봉당을 멀리 하고 학자들과 선비들을 널리 등용하여 학문정치를 실시하고자 조성한 중심지이다. 부용정 공간은 수려한 정원임과 동시에 내연(內宴)을 열어 군신이 교류하는 장소였다.

정조는 주합루, 부용정 이외에 후원 북쪽 소요정 옆에 농산정을 지어 자주 머물렀다고 한다(한영우, 2003). 정조는 선왕인 숙종을 따라 상림십경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창덕궁 후원의 활용에 있어서 그 어느 왕대보다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였다. 그림 2는 인조, 숙종, 정조대에 걸쳐 주요 정자 건립을 통해 본 창덕궁 후원의 조영과정이다.

2. 시문으로 본 후원의 의경 구조

창덕궁 후원에 관한 인조의 시문은 많이 전해지지 않으며, 인조는 후원의 조영자로서는 큰 역할을 하였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이 많이 향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숙종의 시문과 정조의 시문을 대상으로 후원의 의경 구조를 분석하였다. 숙종의 시문은 숙종대왕 어제(肅宗大王御製), 궁궐지 등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의 시문은 홍재전서(弘齋全書), 궁궐지 등에 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시문 중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문과 '한국고전번역원'에 의한 번역문이 함께 존재하는 시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궁궐지에 관해서는 서울학연구소가 출간한 궁궐지 번역서(서울학연구소, 1994)를 활용하였다.

시문 분석은 시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대상경관을 나누고, 연구자가 설정한 의경의 구조(그림 1)를 분석의 축으로 하여 각 시문 별로 경관에 관한 물경, 정경, 의경적인 요소를 구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원의 공간을 ① 부용지, 애련지 공간(주합루, 부용정, 부용지, 희우정, 영화당, 춘당대, 애련정, 애련지 등), ② 존덕정 공간(존덕정, 심추정, 천향각, 청심각 등), ③ 능허정 공간, ④ 옥류천 공간(소요정, 취한정, 청의정, 농산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① 부용지, 춘당대, 애련지 공간은 일반적으로 주합루 권역, 기오현 권역으로 구분하지만(문화재청, 2007), 숙종대는 아직 주합루와 부용정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정조대는 주합루 주변은 학문의 공간으로 그 특성이 강해지지만, 정조실록 42권 19년 상화조어우내원(賞花釣魚于內苑)이나 홍재전서 상림상화조어연구(上林賞花釣魚聯句) 등의 내용으로 볼 때 부용정에서 낚시하고, 영화당 앞 춘당대에서 잔치하는 내용이 소개되는 등 상화조어(賞花釣魚)의 내연(內宴)의 경우는 이상의 공간이 함께 사용됨으로 하나의 정원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② 존덕정 공간⁹⁾은 연못과 숲에서 유유자적하는 분위기를 갖는 공간, ③ 능허정 공간은 후원에서 넓게 부감이 가능한 장소이며, ④ 옥류천 공간은 후원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정원공간으로 각각의 네 공간은 공간의 고유성을 갖는다.

숙종과 정조는 이상 네 곳의 공간을 주제로 하여 많은 시문을 짓고 후대에 남겼다. 먼저 숙종은 창덕궁 후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상림십경을 지어 후원 경관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였다. 숙종의 상림십경은 천향각에서 꽃을 보다(天香看花), 어수당에서 등불을 보다(魚水觀燈), 심추정에서 연꽃을 감상하다(深秋賞蓮), 소요정에서 샘을 보다(逍遙觀泉), 희우정에서 배를 타고 놀다(喜雨泛舟), 청심정에서 달을 감상하다(清心玩月), 관덕정의 단풍 숲(觀德楓林), 관풍각에서 벼 베는 광경(觀豐刈稻), 영화당에서 치르는 과거시험(映花萃試), 능허정에서 눈 그친 경치(凌虛雪霽)이다. 이 중에서 관덕정, 관풍각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현재의 창덕궁 후원에 해당한다.

상림십경의 한 예로 숙종의 천향간화(天香看花)¹⁰⁾를 보자.

분장(粉牆)과 붉은 난간은 높고 낮음이 있으나
거문고 자락은 우뚝 솟아 화각(畫閣)과 나란하구나.
형형하게 꽃은 피어 나를 반기는데
피꼬리 저 너머서 두어 마디 우는구나.
粉牆朱欄有高低 鳳尾亭亭畫閣齊
灼灼花開迎我笑 黃鸝隔葉兩三啼

천향은 모란의 향기를 묘사하며, 천향각에 앉아 한가로이 감상하는 꽃구경과 새 소리를 듣는 것은 한 낮의 향유 방법을 표현한다.

상림십경의 다른 예로 숙종의 소요관천(逍遙觀泉)¹¹⁾을 보자.

나무 푸른 높은 정자에 날은 정말 긴데
산과 내가 둘러있는 맑은 샘의 흐름을 한가롭게 지켜본다.
이 가운데 무한히 흥 따로 있나니
슬잔 전한 굽이진 시내 깊은 근심을 씻네.
樹綠高亭日正悠 間看洞壑玉泉流
別有此中無限興 傳觴曲水滌幽愁

소요정에서 한가로이 구경하는 숙종의 마음과 옥류천의 정경이 잘 표현되어 있다. 소요정 주변에서 눈에 들어오는 주된 경관은 정자, 샘, 숲 등일 터인데, 숙종은 거기에 한가롭게 지켜보고 슬잔을 돌리며 곡연(曲宴)을 즐기듯 근심도 씻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경관에 마음을 담으니 그 경관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물(物)적 대상이 아니고 그 경계(境)를 넘어 그 범위가 마음(情)에 이른다.

숙종은 후원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대상으로 상림십경을 비롯한 다양한 시문을 지어 경관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다양한 정경을 만들었으며, 이는 후대 왕들에게도 전해지고 향유되어 현재에도 전해진다.

정경을 넘어 대상에 대한 극도의 상상력, 중국 고사에 나오는 명소와 비유, 신선사상에 관한 은유 등을 통하여 깊이 있는 의

경을 표현하기도 한다.

숙중은 심추상연(深秋賞蓮)에서 심추정 죽림의 운치를 중국 호북성의 황강(黃岡)을 이긴다(竹亭瀟洒勝黃岡)고 하였다. 또한 옥류천 바위에 새긴 시에서는 멀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라고 상상하는 요락구천래(遙落九天來), 제능허정(題凌虛亭)이란 시에서는 능허정에서 보이는 하늘을 도교의 신선이 사는 태청(太淸)에 비교하는 것(鸞翠巖巖接太淸)¹⁶⁾ 등이 후원에 대한 숙중의 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는 숙중의 시문에 나타난 정경과 의경의 예를 정리한 것이다.

정조는 숙중과 같이 후원의 네 공간을 고르게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선양의 정경을 이어받아 상림십경을 지어 향유하였다. 상림십경의 각 경(景)의 시 중에서도 유사한 정경을 읊는 예가 눈에 띈다.

만리의 가을 하늘 대낮과 같으니	萬里秋天如白晝 (숙중, 淸心玩月)
깊이 가려진 방구석도 모두 대낮 같아서	堂奧蔽幽皆似晝 (정조, 淸心霽月)
천암만수가 모두 은과 같음이라	千巖萬樹捻如銀 (숙중, 凌虛霽雪)
옥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윽하구나	瓊樹琪花擁後前 (정조, 凌虛暮雪)

정조시대 후원의 활용에 관한 특징은 상화조어(賞花釣魚)의 연(宴)에서 잘 나타난다.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은 송 인종(仁宗) 때에 천장각(天章閣)에 학사(學士)와 대제(待制) 등을 두고서, 매년 봄이면 후원(後苑)에서 여러 학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꽃구경하고 고기를 낚으며, 군신 간에 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즐겁게 노닐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¹⁷⁾. 홍재전서에는 상화조어연의 모습과 장소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마침내 籠山亭에서 꽃구경을 하고 水澤齋에서 고기를 낚고 나서, 이윽고 春塘臺에 임하여 활을 쓰고 酒饌을 내린 다음 韻을 나누어 연구를 지어서 즐거운 일을 기록하였다.

홍재전서 권6시2 상림상화조어연구

望春亭과 尊德亭에서 꽃구경을 하게 하고, 太淸門 안에서 떡을 내렸는데, 사람이 많아서 이르는 곳마다 장소가 비좁았다. 또 春塘臺에서 활쏘기를 마치고, 芙蓉亭 앞 못에서 고기를 낚는데 (중략)

홍재전서 권6시2 부용정. 상화조어.

옥류천 공간, 존덕정 공간, 부용지, 춘당대, 애련지 공간이 모두 꽃구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꽃구경 뒤에는 부용지, 춘당대에서 낚시, 연회, 시운이 행하여졌다.

표 2. 숙중의 후원에 관한 시문과 의경 구조

공간 대구분	공간 소구분	시문 제목	물경(물리적 사실)	정경(정경적 상태)	의경(이상적 사상)
부용지 애련지 공간	영화당	御製詩	연못, 오리, 고기	조용한 정원에 일 없으니 맑은 빛 구경한다.	
		映花堂郎事	춘당대, 낙엽 해	뜰에 가득한 낙엽은 홍섬(紅蟻)을 짓는다.	
존덕정 공간	심추정	深秋賞蓮	죽정, 연못	푸른 물빛(碧水光), 은은한 서풍(陣陣西風) 연꽃이 은은한 향기를 전하도록 두다.	勝黃岡
	존덕정	尊德亭偶吟	연못, 물고기, 갈매기	높은 난간(危欄)에 기대어 조는 갈매기 짝하네.	
	천향각	天香看花	정자, 꽃, 새	형형하게 꽃은 피어 나를 반기는데 피꼬리 저 너머서 두어 마디 우는구나.	
	청심정	淸心玩月	이슬, 달	옥로(玉露)가 뜰에 내려 오래 녹지 않는데 둥글고 밝은 달이 밝은 빛 비춤이라. 만 리의 가을 하늘 대낮과 같으니	
		四時題詠(春)	나비, 피꼬리	봄 늦은 산중에는 온갖 꽃 피어	
四時題詠(夏)		비, 정자	바람이 연꽃을 흔들며 암향(暗香)을 보내네.		
四時題詠(秋)		단풍나무, 산	인덕 뽕뽕한 단풍나무숲이 저절로 붉구나.		
	四時題詠(冬)	정자	창송(蒼松)이 변하여 백룡린(白龍鱗) 되었다네.	六花 ¹²⁾	
능허정 공간	능허정	凌虛雪霽	바람, 눈	천암만수(千巖萬樹)가 모두 은과 같음이라.	瑤臺 ¹³⁾
		題凌虛亭	정자, 산, 수림	천 가지 푸른나무 뽕뽕히 살쪽 꽃은 양 백악산(白岳)은 안개를 머금어 겹겹 보이고	太淸 ¹⁴⁾
옥류천 공간	소요정	逍遙觀泉	정자, 샘, 숲	술잔 전한 굵어진 시내 우수(幽愁)를 씻네. 한가히 동학(洞壑)의 옥천(玉泉) 흐름을 지켜본다.	
	옥류천	玉流川	샘	돌아보니 흰 무지개 읽고	遙落九天來 ¹⁵⁾
	취한정	翠寒亭題詠	풀, 숲, 정자	녹음방초는 정히 구경할 만하는데 난간 밖으로 폭포소리가 길게 머물었네. 후원의 잎새마다 매미 울음 들리네. 무성하게 우거진 숲이 정자를 두르고	君子節, 一心貞

정조가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을 신하들에게 열어준 것은 단지 신하들과 즐겁게 교류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아래와 같이 정조는 외척을 경계하고 유신들을 가까이 하며 새로운 학문 정치, 문화정치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후원에서의 내연(內宴)은 이를 이루기 위해 신하들의 학문을 장려하고, 함께 교류하며 군신의 연을 견고히 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이처럼 정조에게 있어서 후원이란 왕가의 향유공간이라는 범위를 넘어 그가 꿈꾸는 정치이념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공간이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內苑의 놀이에는 戚里가 아니고서는 들어와 참여할 수가 없었으니 外臣을 內宴에 참여시킨 것은 특별한 은전이라 하겠다.(중략) 나는 세자 때부터 어진 신하를 내 편으로 하고 戚里는 배척해야 한다는 의리를 깊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략) 한가로이 꽃구경하고 낚시질할 때까지도 關臣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고, (중략)

정조실록 42권 19년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유희삼아 즐겁게 놀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들과 함께 즐기면서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여 천지의 調和에 응하려는 것이다.”

부용정시연기 다산시문집

또한 개인적 휴식의 공간으로서는 옥류천 공간을 가장 선호하였다. 부용정과 주합루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과 반대로 소박한 취향의 농산정을 지어 자주 그곳에 머물며 소요하였다. 후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다양함 안에서 작은 정자를 하나지어 경치를 그곳으로 모이게 하면 시시때때로 변화는 자연 안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다. 이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境이 눈에 보이는 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조는 마음으로 즐길 만큼 境을 넓혀야 비로소 소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요정은 정조에게 있어 송나라 장자가 말한 진정한 소요유를 수양하는 장이었다고 하겠다. 정조의 소요정가는 후원에 대한 정조의 의경을 잘 나타낸다.

(중략) 정자가 동산의 한가운데 있어 한 동산의 좋은 경치가 모두 이 정자에 모이며, 기이한 산봉우리와 층층의 암벽, 그윽한 골짜

표 3. 정조의 후원에 관한 시문과 의경 구조

공간 대구분	공간 소구분	시문 제목	물경 (물리적 사실)	정경 (정경적 상태)	의경 (이상적 사상)
부용지 애련지 공간	부용정	夜登芙蓉亭小樓	연못, 정자, 섬, 등, 꽃, 숲, 달	사롱(紗籠)을 못가에 달아 화려한 꽃과 밝은 달빛과 함께 위아래로 비추네.	太液池 ¹⁹⁾ , 天上羣仙
		芙蓉亭 (賞花釣魚)	춘당대, 배	슬기운 꽃향기 속에 비단 돛을 펼쳤네.	
		夜登芙蓉亭小樓 (與舟中嶼中)	달, 꽃, 나무, 등, 배	꽃은 천 겹의 나무에 빛을 발하고 등이 아홉 굽이 난간에 걸렸네.	
		芙蓉亭上梁文	연꽃, 연못	-	太液池, 蓬萊, 太乙仙
	애련정	愛蓮亭	연꽃, 연못	푸른 줄기 붉은 꽃이 물속 하늘에 비치누나.	
	어수문	魚水泛舟	연못, 물고기, 배	넉넉히 춘풍 아래 한만하게 노닐 수 있으리	米家書畫 ²⁰⁾
	영화당	映花試士	춘당대, 유생	임금님 의장 아래 수많은 유생들 모이셨네.	仙人
희우정	喜雨賞蓮	비, 연꽃	좋은 빗속에 수시로 향기를 풍겨 오누나.	濂翁惟解愛 ²¹⁾	
존덕정 공간	망춘정	望春聞鶯	나비, 피꼬리	화창한 봄을 희롱하는 나비 푸른 숲 그늘에서 우는 피꼬리	仁天位育 ²²⁾
	천향각	天香春晚	풀, 버드나무, 계치새	풀은 아름다운 자리 같고 버들은 연기 같은데	仙香
	청심정	淸心霽月	숲, 달	동녘 숲의 갠 달 깊이 가려진 방구석도 모두 대낮 같아서	
능허정 공간	능허정	凌虛暮雪	눈, 산, 나무, 꽃	소소(騷騷)히 내리는 눈 옥 같은 나무와 꽃	
옥류천 공간	소요정	逍遙亭	정자, 꽃나무	화창한 봄 빛어내어 사방에 두루 퍼지네.	上淸 (逍遙, 野馬, 溟鵬) ²³⁾
		逍遙流觴	시내	옥같이 맑게 튀어 흐르는 물 굽이굽이 길기도 한데 산색은 초가을 서늘함을 보내오네.	蘭亭 ²⁴⁾
		逍遙亭記	정자, 비	기이한 산봉우리 시시각각 다른 경치	逍遙, 境 ²⁵⁾
	청의정	淸漪亭	풀, 꽃, 시내	향기로온 풀 고운 꽃 비 갠 석양 하늘에 샘에서 나는 구슬 거품에 신성(新聲)이 진동하네.	逍遙
		淸漪亭賞花	꽃, 정자	꽃나무 아래 바위에서 거문고 뜯고 물 가운데 정자에서 낚시질 하네.	
	취한정	翠寒亭	시내, 소나무, 나무, 산	자옥한 안개의 푸른 시내는 그림 경지를 열어 놓고	

기들이 朝暮와 四時로 각각 세 경치를 드러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을 벗어난 맑고 깨끗한 생각을 갖게 하니 땅의 소요할 만한 경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중략)

홍재전서 권4춘저록4기 소요정기

임금으로서 정조가 지닌 자세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시문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¹⁸⁾ 일 것이다. 만 가지 물에 하나로 귀결되는 달과 같이 신하들의 재량에 맞게 잘 쓰며 군자의 뜻을 이루는 만천명월주인이고자 하였다. 현재 창덕궁 후원에는 존덕정과 서향각에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라 쓰여진 현판이 하나씩 걸려 있다(문화재청, 2004).

학문이 뛰어났던 정조는 선왕 숙종의 뒤를 이어 후원의 팔경 시인 상림십경을 차운하여 후원의 아름다움과 이를 통해 얻은 정과 의를 시로 적어 향유하였으며, 그 외에 후원의 다른 공간에 있어서도 많은 시문을 남겼다. 내용은 후원에서의 아름다운 정경과 사시가흥(四時佳興)을 읊기도 하고, 또한 일국의 왕으로 군자의 마음가짐이나 학자로서의 뜻을 담기도 했다. 이렇듯 정치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남다른 뜻을 가지고 후원을 사랑하고 활용하였기에 그의 시문에 있어서 정경과 의경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3은 정조가 지은 후원 내 각 공간에 대한 시문과 시문에 나타난 물경, 정경, 의경의 표현들을 정리한 것이다.

3. 창덕궁 후원의 의경

지금까지 분석한 숙종과 정조의 시문을 의경의 구조(그림 1)에 맞추어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이 정리된다. 표 2와 표 3에서 정리한 정경, 의경의 표현은 후원의 경관 특성으로 정리되며, 물경에서 정경으로, 정경에서 의경으로 경계가 확대되는 형태로 의경의 구조가 파악된다. 사고범위의 점진적 확대이므로 물경, 정경, 의경의 사이에는 구분이 양호하지 않은 물경적 정경, 정경적 의경이 존재한다.

창덕궁 후원에 있어 의경의 창작주체는 태종 이후의 역대왕들이지만 특히 숙종, 정조는 중심적인 주체이다. 시문을 통해 숙종과 정조의 정경과 의경을 유추하고, 이와 관련한 경관 언어를 추출함으로써 우리는 창덕궁 후원의 물적 경관에 내면적 가치를 포함한 경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궁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향유 가능한 물적 대상은 한정되지만 인위적으로 물경을 만드는 일에는 취미를 두지 않고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여 다양한 마음의 경치를 만들었다.

특히, 상림십경으로 창작된 숙종의 사유적(私有的)인 정경은 후대에 이어져 후원의 경관을 특징짓는 또 다른 정경이 되었다.

정조는 숙종의 정경을 바탕으로 사유적인 정경을 더욱 발전 시키고 동시에, 많은 의경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는 정조가 군주이면서도 대학자 못지않게 박식하고, 당파를 배척하고 학문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군주로서의 강한 열망이 후원에 투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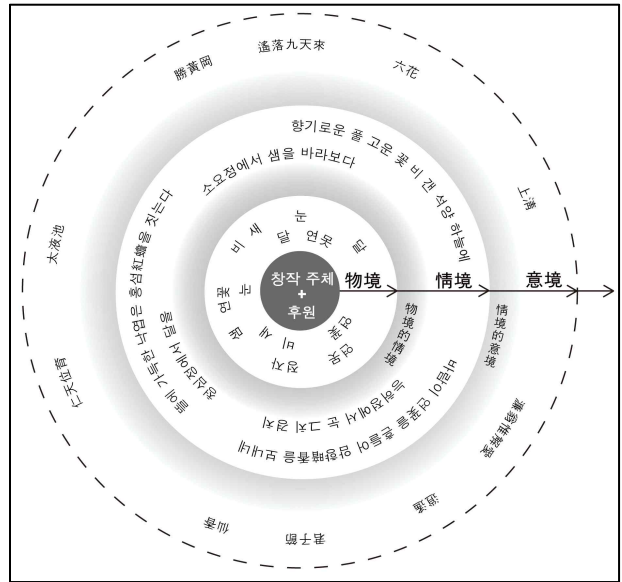


그림 3. 창덕궁 후원의 의경과 경관 특성

어 그의 이상(理想)과 진리(眞理)가 의경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합루와 부용정은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올라가 군자의 도는 성장하고 소인의 도는 소멸하게 되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또한 소요정은 “장자의 소요유를 배워 군자가 되는 덕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조의 의경은 후원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경은 정신적인 개념을 체계화하여 동양예술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개념이다. 의경을 정신적 가치로서 극대화 시키는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사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발달한 만큼 의경을 중국예술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다.

둘째, 창덕궁 후원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인조는 후원의 많은 정자를 중수하여 물리적 기반을 이루었다. 이후 숙종은 후원공간의 전반에 걸쳐 정자를 조성하였으며, 정경의 기반이 되는 상림십경을 짓고 그 외 많은 시문을 남겼다. 후원 경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정경은 숙종대에 다수 만들어졌다.

정조는 주합루와 규장각을 세우고 후원을 학문연구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상화조어연을 통해 신하들과 교류하며 군신의 도를 실현하였고, 참된 군자로서의 의를 배우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정조는 후원의 의경을 넓게 확장시켰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문화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교할 때 그 특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의 가치가 불확실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정원의 가치를 해석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연순응, 삼재사상, 사의적 의미 등 내면적 가치에 대한 그 깊이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태에 주목하는 양식론(樣式論)에 앞서 내면적 가치에 대해 보다 깊게 연구해야 한다. 또한 내면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해석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며, 그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경 연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의경 개념을 활용한 우리나라 전통정원 해석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의경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정원경관의 특징을 해석하는 연구로서 향후 활용의 범위가 크리라 기대한다.

주 1) 사해는 1936년 간행된 대표적인 중국어 사전이며, 본 연구에서는 辭海(2009) 第6版, 上海辭書出版社를 참고하였다.
 주 2) 中國美學範疇辭典은 1995년 중국의 人民大學에서 출판한 미학용어 사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大東文化大學 人文科學研究所가 2003년 번역한 번역서를 참고하였다.
 주 3) 출처 胡經之主編 中國古典文藝學叢編 二, 임미숙(2004) 재인용
 주 4) 출처 吳曉(1990) 意象符號與情感空間, 임미숙(2004) 재인용
 주 5) 같은 맥락에서 중국 원림에 있어서 의경의 개념을 '경계'로 다른 국내 연구 사례에는 이유직(1996), 박희성(2011) 등이 있다.
 주 6) 출처는 태종실록 권11일.
 주 7) 출처는 세종실록 권26일.
 주 8) 출처는 연산군일기 권61일.
 주 9) 현재 존덕정 공간에 있는 관람정, 승재정, 반도지는 순종(재위 1907~1910)시 조성된 것으로 전해지며, 일제 통감부의 간섭에 많이 작용되어 지어진 異形的인 건물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 10) 천향간화의 원문 출처는 궁궐지(서울학 연구소, 1994)의 영인본임.
 주 11) 소요관천의 원문 출처는 궁궐지(서울학 연구소, 1994)의 영인본임.
 주 12) 고대 중국의 진법(陣法)의 하나로 눈을 비유함.
 주 13) 李白의 시 청평조사삼수(淸平調詞三首)에서 유래하며, 옥으로 만든 대(臺), 신선이 사는 곳.
 주 14) 도교에서 신선이 산다는 宮인 三清(玉清·上清·太清) 중 하나이다.
 주 15) 遙落九天來 九天은 하늘의 아홉 방위(鈞天, 蒼天, 昊天, 炎天, 玄天, 陽天, 朱天, 變天, 幽天)를 이르는 말로, 멀리 하늘에서 부티 물이 떨어짐을 의미함.
 주 16) 원문 출처는 문화재청(2007) 궁궐의 현판과 주련, 수류산방, p.242.
 주 17)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의 출처는 흥재전서 권6시2일.
 주 18) 출처는 흥재전서 권10일.
 주 19) 중국고사에 나오는 연못, 한나라, 당나라, 청나라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함.
 주 20) 북송의 서가 미불(米芾)이 항상 배에 書畫를 가득 싣고 江湖를 유람하였으므로 후세에 미불의 서화를 가리켜 米家船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주 21) 염옹(鹽翁)은 송나라 도화자 염계 주돈이를 말한다. 주돈이의 '愛蓮說'은 속종의 '愛蓮亭記'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 22) 仁天과 位育는 모두 주자의 中庸章句에서 인용한 말이다.
 주 23) 逍遙, 野馬, 溟鵬는 장자의 逍遙遊에서 인용한 말이다.
 주 24) 중국 절강성 난저(蘭渚)에 있던 정자.
 주 25) 정조는 마음으로 즐길 만큼 境을 넓혀야 비로소 소요할 수 있다 하여, 경계로서 境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인용문헌

1. 김영모(1998). 전통공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현미(2011). 조선시대 별서정원 소재원의 의경 양상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다산시문집 제4권, 제14권.
 4. 류명희(1994). 敦煌歌辭의 意境研究. 人文論叢, 143(1): 1-21.
 5. 문화재청(2007). 궁궐의 현판과 주련. 서울: 수류산방.

6. 박희성(2011). 원림, 경계 없는 자연 중국정원에서 만난 선과 차, 사대 부와 의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 백지성(1996). 창덕궁 후원 어수당 구역의 공간 구성과 식재에 대하여 동결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2(1): 15-29.
 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9. 서울학연구소(1994). 궁궐지1: 경복궁, 창덕궁.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0. 성범중(1993). 韓國漢詩의 意境設定 方法과 樣相에 대한 研究: 朝鮮時代 詩話集 所載詩를 資料로 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세종실록 권26, 권47.
 12. 숙종실록 권24.
 13. 신상섭(2011). 안평대군 비해당(匪懈堂) 원림의 의미경관과 조경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28-37.
 14. 심우경, 지정섭(1994). 조선시대 궁궐의 조경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궁궐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2(2): 23-32.
 15. 안장리(2010). 조선시대 왕의 八景 향유 양상. 東洋學, 42: 43-65
 16. 양창석(2007). 중국산수화의 의경(意境)에 관한 연구. 美術教育論叢, 24(2): 175-199.
 17. 연산군일기 권50, 권58, 권61.
 18. 이유직(1987). 조선시대 궁원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상징성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이유직(1996). 중국정원의 미학: 조영과 감상의 미적경계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4(3): 79-95.
 20. 이혁중, 최기수(2009). 園林속 洞天의 경관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103-115.
 21. 임미숙(2004). 意景說의 形成過程과 美學特徵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송동현(2005).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현판구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전인순(1989). 조선시대 궁원의 조경요소에 기인 종교적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정조실록 권2, 권34, 권42
 25. 조재모(1997). 창덕궁의 성장 배경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정우진, 심우경(2011). 창경궁 후원 이용의 역사적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71-89.
 27. 진상철(1995). 思想體系로 본 朝鮮時代 宮闕의 造景樣式. 서울학 연구 5: 230-278.
 28. 최중덕(2006). 조선의 참 궁궐 창덕궁. 서울: 놀와.
 29. 탁영란, 김순애, 김태경, 윤이화(2009). 경관 지각의 구조 모형 분석 한국 전통정원 경관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98-107.
 30. 태종실록 권11, 권27.
 31. 한국고전번역DB. http://db.itkc.or.kr
 32. 한영우(2003). 창덕궁과 창경궁. 서울: 열화당.
 33. 흥재전서 권1, 권4, 권6.
 34. Macdonell, A. A.(1929). A Practical Sanskrit Dictionary with Transliteration, Accentuation, and Etymological Analysis Throughout. London: Oxford.
 35. 谷光燦(2010). 中國古典園林における 意境と空間要素の關係に關する研究. 千葉大學大學院. 環境計畫學, No. 20. 千葉大學園藝學部綠地環境學科都市環境デザイン研究室.
 36. 金學智(1999). 蘇州園林. 蘇州大學出版社.
 37. 大東文化大學 人文科學研究所(2003) 中國美學範疇辭典譯注. 東京.
 38. 盛翀(2009). 江南園林意境.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39. 新村出(1955). 廣辭苑第二版. 東京: 岩波書店.
 40. 葉朗(1985). 中國美學史大綱.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41. 王國維 著 吳昌谷 譯(2004). 世상의 노래비평, 人間詞話. 서울: 소명출판.
 42. 王福興(2004). 試論中國古典園林意境的表現手法. 中國園林, 43-44.
 43. 宗白華(1981).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44. 陳從周(1985). 說園. 廣州: 花城出版社.
 45. 彭一剛(1984). 中國古典園林分析. 中國建築工業出版社.

원고 접수 일: 2011년 8월 2일
 심사 일: 2011년 8월 16일 (1차)
 2011년 8월 30일 (2차)
 게재 확정 일: 2011년 8월 31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